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7. 15 | 통권 제24호(2012-12) |

최근 미취업자 변동에 대한 분석*

[요약]

- 미취업자 비중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급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아직 2008년 초반 및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는 아님.
- 그러나 이것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이 더더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보다는 2010년부터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가 맞물린 것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40대 초반까지를 포함하는 젊은 고졸 이하 학력계층에서는 미취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감소했지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미취업자 비중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임.
 - 연령 특성상 중간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서 입·이직을 반복하는 특성이 강한 이들 계층 이직자들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일자리 부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률이 담보 상태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일자리의 양적 증가로 인구변동을 감안하면 고용률이 상당히 상승한 상태이지만,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는 충분치 못해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올해 들어 세계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장기실업자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관심이 요망됨.

* 이 글은 「최근 미취업자 변동에 대한 분석」(성재민(2012), 『노동리뷰』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고용률 변화와 인구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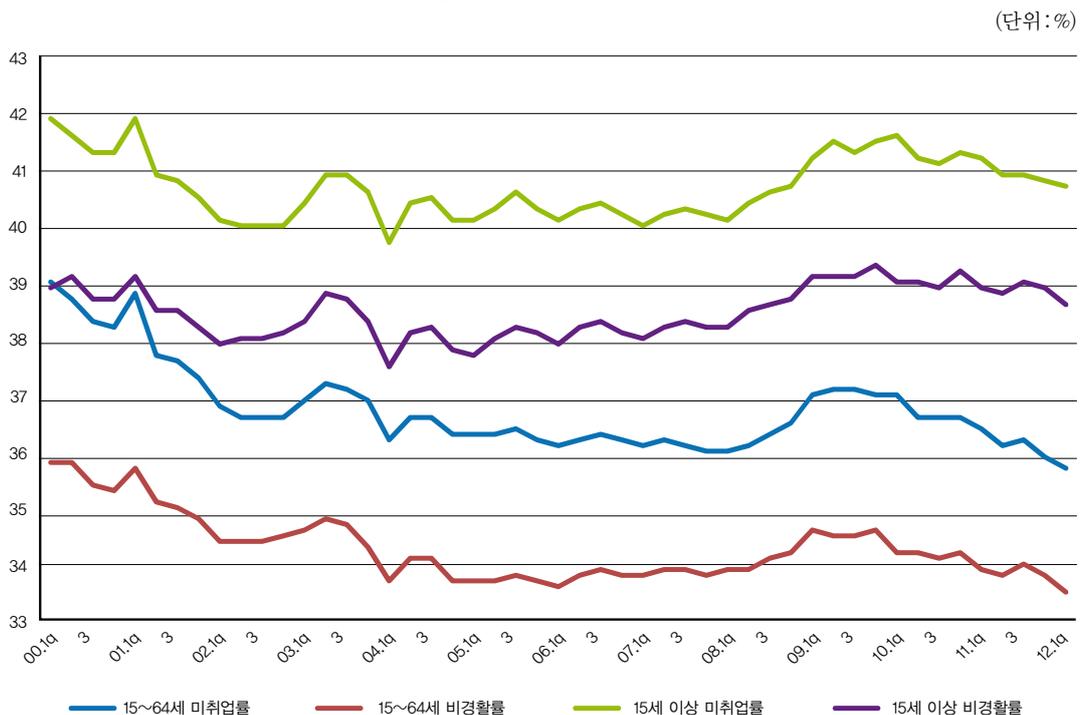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중 미취업자 비중의 최근 몇년간 추이를 보면,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 초반 급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아직 2008년 초반 및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는 아님.
 - 이번 호에서는 미취업자 비중이 2008년 초반 및 그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미취업상태에서의 변화 등 노동공급 요인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보면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

의 미취업률은 2012년 1분기 현재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동시장에서 많이 활동하는 15~64세로 제한해 미취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계산해 보면, 이미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넘어선 상태임을 알 수 있음(그림 1 참조).

- 특히 각 연도 1분기만 비교하면 15~64세의 2012년 1분기 미취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를 통해 인구변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미취업자 비중이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음.

[그림 1] 미취업률 및 비경활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이와 같은 추측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표 1>에서는 2008년 연령별 인구분포에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을 적용할 경우, 2012년 연령별 인구분포에 2008년 연령별 고용률을 적용할 경우 전체 인구의 고용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았음.
- 2008년 연령별 고용률을 2012년 연령별 인구비중에 적용하면 고용률이 57.6%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 Ⅲ의 하단). 연령별 고용률이 2008년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인구분포 변화 때문에 전체 고용률이 하락하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줌.
 - 반대로 2012년 고용률을 2008년 연령별 인구분포에 적용하면 <표 1> IV의 하단처럼 58.7%라는 고용률이 계

산됨. 이는 인구분포가 4년간 변하지 않았다면 2012년에는 57.8%가 아니라 58.7%라는, 2012년 실제 고용률뿐 아니라 2008년 실제 고용률보다도 더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됨.

- 연령별 고용률 기여분을 보아도 2008년 인구분포 가정 시 2012년 고용률을 대입하면 2012년 실제 고용률 기여분에 비해 젊은 층은 기여분이 작아지고 고령층은 기여분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임.
 - 이를테면, 30~34세는 2012년 고용률을 적용할 때 2008년 인구분포 가정 시 고용률 기여분은 7.00%p였지만, 2012년 인구분포를 가정하면 6.66%p로 하락함. 4년 사이 해당 연령대의 인

<표 1> 연령별 고용률과 연령별 인구분포(각 연도 1분기)

(단위: %, %p)

	연령별 고용률		연령별 인구분포		I	II	III	IV
	2008	2012	2008	2012				
15~19세	6.6	7.1	8.2	8.0	0.54	0.57	0.50	0.60
20~24세	46.2	43.8	6.9	6.7	3.19	2.93	3.10	3.00
25~29세	68.2	69.6	9.9	8.4	6.75	5.85	5.70	6.90
30~34세	70.5	70.8	9.9	9.4	6.98	6.66	6.70	7.00
35~39세	74.3	72.6	11.1	9.8	8.25	7.11	7.30	8.00
40~44세	77.9	77.1	10.4	10.4	8.10	8.02	8.10	8.00
45~49세	76.9	77.8	10.7	10.0	8.23	7.78	7.70	8.30
50~54세	71.9	74.1	8.9	9.9	6.40	7.34	7.10	6.60
55~59세	63.8	66.4	6.4	7.7	4.08	5.11	4.90	4.20
60~64세	50.8	52.4	5.1	5.7	2.59	2.99	2.90	2.70
65~69세	38.5	37.2	4.8	4.6	1.85	1.71	1.80	1.80
70~74세	27.9	26.6	3.7	4.2	1.03	1.12	1.20	1.00
75세 이상	13.1	12.9	4.2	5.3	0.55	0.68	0.70	0.50
전체	58.5	57.8	100.0	100.0	58.5	57.8	57.6	58.7

주: I = 2008년 연령별 고용률 × 2008년 연령별 인구비중, II = 2012년 연령별 고용률 × 2012년 연령별 인구비중,
 III = 2008년 연령별 고용률 × 2012년 연령별 인구비중, IV = 2012년 연령별 고용률 × 2008년 연령별 인구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구비중이 9.9%에서 9.4%로 떨어지면서 고용률 기여분이 감소한 것임.

- 반면 55~59세는 2008년 인구분포에 2012년 고용률을 적용하면 고용률 기여분이 4.2%p이지만, 2012년 인구분포에 적용하면 5.11%p로 고용률 기여분이 증가함.

- 이와 같이 고령화로 인해 취업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주력연령대 인구 비중은 줄고 취업 비중이 낮은 50대 이상 연령층 인구 비중은 늘어남으로써 2010년부터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전체 고용률이 증가하지 못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음.
- 전체적인 고용률 변동에서는 인구분포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분포 효과만 걷어내면 미취업률 또는 고용률의 관점에서 본 노동시장 상황이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모두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음(표 2 참조).

- 총량은 좋아졌지만, 35~39세, 40~44세처럼 연령대에 따라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1분기보다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임.¹⁾

- 35~44세의 고용률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감안해 44세 이하 연령대 미취업률을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남성 고졸 이하는 25~29세, 30~34세, 35~39세의 미취업자 비율이 2008년 1분기보다 증가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표 2〉 연령별, 성별 미취업률 추이(각 연도 1분기)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12	2008	2012
15~19세	92.7	93.4	94.6	93.8	92.6	92.9	94.7	94.3	92.1	91.4
20~24세	51.6	53.8	57.5	56.7	57.3	56.3	60.6	60.1	48.8	53.1
25~29세	31.9	31.8	32.9	32.5	31.8	30.4	29.5	29.1	34.2	31.8
30~34세	30.4	29.5	31.0	29.8	30.3	29.2	12.1	12.1	47.6	47.1
35~39세	25.6	25.7	27.2	27.9	26.8	27.5	8.6	9.1	43.4	46.6
40~44세	22.0	22.1	22.5	23.2	22.6	22.9	8.5	8.3	36.1	37.9
45~49세	23.3	23.2	23.7	24.0	23.0	22.2	9.7	9.9	36.8	34.8
50~54세	29.3	28.1	27.3	27.4	27.0	26.0	13.2	12.5	43.2	39.4
55~59세	38.1	36.2	36.8	36.5	35.4	33.6	21.7	19.2	50.5	47.9
60~64세	47.9	49.2	49.3	50.1	48.6	47.6	35.1	33.9	62.4	60.6
65~69세	60.8	61.6	61.8	65.1	63.9	62.8	49.4	50.6	71.6	73.0
70~74세	71.8	72.1	73.0	73.5	73.8	73.4	63.4	63.3	78.7	81.2
75세 이상	87.1	87.0	87.6	89.1	88.5	87.1	78.8	80.5	91.0	9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1) 이하의 논의에서 재학자 비중이 매우 높은 15~19세와 20~24세는 제외함.

- 남성 전문대졸 이상은 25~29세, 35~39세, 40~44세에서 2008년 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35~39세, 40~44세의 경우 각각 5.7%→6.0%, 5.5%→6.1%로 5% 안팎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40~44세에서 약간 증가한 상태일 뿐, 다른 연령대는 모두 미취업률이 감소했음. 고졸 이하는 여성도 30~34세, 35~39세, 40~44세 등 30대를 중심으로 전후한 연령대에서 미취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정도 회복이 진행되었고, 인구변동을 감

안하면 금융위기 이전보다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여전히 젊은 저학력자 집단만큼은 아직 회복이 더디다고 볼 수 있음.

입·이직률 변동과 이직사유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전직이 있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을 그만둔지 얼마나 되었는지 질문함.
 - Kaitz(1970)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업진입과 이탈, 평균기간을 연구하는 전통에서는 이 변수와 실업자 수를 이용해 실업진입률, 탈출률, 평균실업기간 변화를 연구함.
 - 이하에서 입이직률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법론은 Shimer(2012) 참조

〈표 3〉 성별, 연령별, 학력별 미취업률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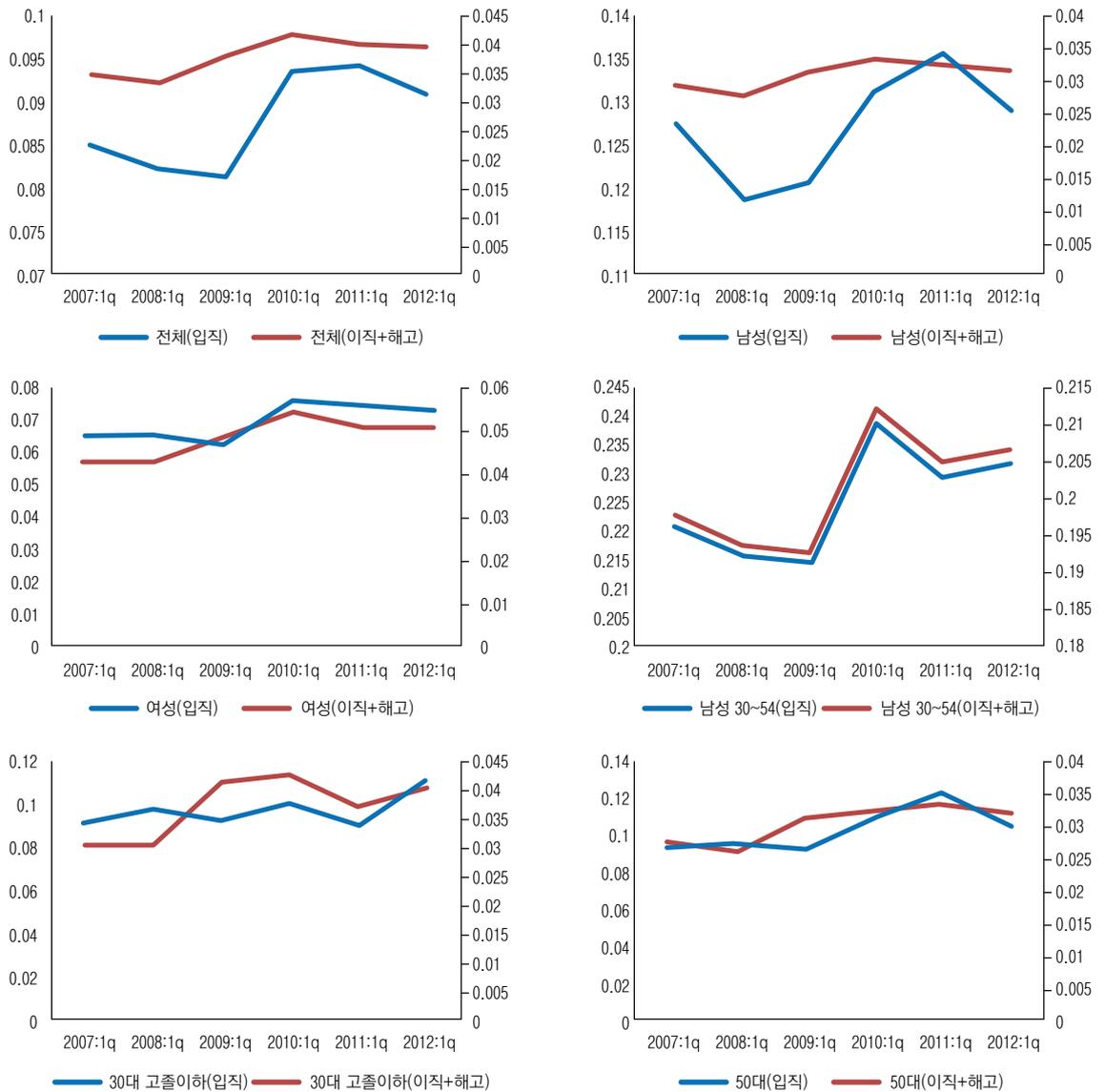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2008	2012	2008	2012
남성	20~24세	63.1	62.5	41.2	39.3
	25~29세	37.6	38.0	22.1	22.7
	30~34세	14.8	16.9	10.2	9.5
	35~39세	11.5	13.7	5.7	6.0
	40~44세	11.0	10.8	5.5	6.1
	20~44세	27.2	29.9	11.8	11.4
여성	20~24세	60.4	65.7	29.2	30.8
	25~29세	44.6	42.1	29.0	28.0
	30~34세	52.2	54.7	43.6	43.0
	35~39세	42.6	50.1	44.6	43.7
	40~44세	34.9	35.4	39.1	41.7
	20~44세	45.7	49.2	36.9	3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 [그림 2]를 보면, 2007년 1분기와 2008년 1분기에 비해 2009년 1분기 이후 미취업 진입률과 취업으로의 입직률 둘 다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성별 또는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아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남.

- 문제가 되는 30대 고졸 이하의 미취업 진입률은 다른 연령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국제금융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증가해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그러나 입직률은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상승-유지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국제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나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림 2] 인구집단별 미취업 진입률('이직+해고')과 취업으로의 입직률('입직')



주: '입직'은 좌측 축, '이직+해고'는 우측 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 이를 보면 이직은 증가했으나 입직이 충분히 함께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30대 고졸 이하 미취업률이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 2012년 1분기에는 취업 진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30대 고졸 이하의 취업 상황이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30대 고졸 이하 신규 미취업 진입자 표본수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착시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입직과 이직 양면에서 노동시장 유량(flow)이 증가했다는 것임. 증가된 유량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증가한 유량이 해고가 여전히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고용이 회복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표 4>에서는 미취업상태가 1개월 이하²⁾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분석함.
 - 새롭게 이직하는 사람들의 이직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1개월 이하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음.
 - 자발적 이직(개인, 가족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작업여건 불만족) 비중을 집계함.
- 경기가 좋아지면 대체로 자발적 이직 비중이 늘고 경기가 나빠지면 비자발적 이직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각 연도 1분기 전체 신규미취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2009년 48.2% → 2012년 56.1%).
 - 각 특성별로 보아도 자발적 이직 비중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음.
- 이와 같이 볼 때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증가된 미취업 진입률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제금융위기 당사와 달리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의 증가 때문은 아니고, 자발적 이직의 증가 때문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 이렇게 보면, 30대 저학력자의 경우 국제금융위기 때는 해고로,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발적인 이직이 증가했지만, 연령 특성상 중간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함.³⁾
-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미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이 증가된

2) 정확히는 6주 이내일 것임. 전월에 이직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월초에 직장을 그만두었을 수도 월말에 그만두었을 수도 있는데, 월초일 경우 조사시점까지 대략 6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임.

3) 김복순(2012)에 따르면,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간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났음. 같은 자료에 보면 상위 소득, 하위 소득 일자리는 증가했는데, 이는 대졸자 및 50대 이상 고령층 고용률 증가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 특성별 미취업 신규진입자 중 자발적 이직자 비중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54.5	53.1	48.2	52.4	52.7	56.1
남성	49.6	45.5	39.7	47.5	45.7	48.4
여성	59.3	59.9	55.9	56.8	59.1	63.2
30대 고졸 이하	49.2	54.0	50.6	60.0	56.8	59.7
30대 전문대졸 이상	62.3	68.6	56.7	62.4	65.9	69.4
50대	29.5	35.2	28.9	34.8	36.6	38.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노동시장 유량은 재진입 어려움으로 연결되면서 바로 장기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아직 회복이 미진한 젊은 저학력자의 고용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참고문헌

김복순(2012), 「금융위기 이후 중간임금계층의 변화」,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Kaitz, Hyman B.(1970), “Analyzing the Length of Spells of Unemployment”, *Monthly Labor Review* 93, pp.10~20.
 Shimer, Robert(2012), “Reassessing the ins and outs of Un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5, pp.127~148.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eongjm@kli.re.kr / 02-3775-5580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